

국제수산월간동향

2022. 5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목 차

- 1..... 호주,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량 회복 위한 어업권 매입
- 2..... 멕시코만 상업어업 업계, 미 수산청(NMFS) 소송
- 3... 미국, 태평양 국가들의 IUU어업 대응을 돕기 위해 적극 주도
- 4... 라보은행 : 세계 수산물 무역 가치 반등하여 1640억달러 도달
- 5..... 상하이 내 외국산 신선 식품 유통 재개
- 6..... 인도, 연안 개도국에 대한 수산 보조금 특례 주장

□ 2,000만 달러의 호주 동남부 트롤 어업 대상

- 호주 정부가 기후변화로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2,000만 달러 가치의 어업 면허를 어선들로부터 재구매할 것이라 발표함
- 호주 수산 관리 당국은 본 조치를 호주 수산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동남해 트롤 어업을 대상으로 실행할 예정이며,
 - 이는 기후변화 및 환경 요소에 대응하여 처음으로 내린 어업권 매수 결정이라 밝힘
- 호주 정부는 지난 3월 동남해 트롤 어업의 구조 조정을 위한 2,400만 달러의 예산을 발표하였고,
 - 본 예산의 대부분이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어업권 매수에 이용될 예정임
- 지난 4월 상원 공청회에서 호주 수산 당국은 특히 자원 회복을 위해 낮은 어획 한도가 설정된 네 어종*에 대한 자원 상태에 우려를 표하였음
 - * jackass morwong, redfish, john dory, silver trevally
- 호주 수산 당국 대변인에 따르면 57개의 동남해 트롤 어업 허가가 본 매수 사업의 대상으로 지목됨
- 호주 동부에서 온난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열기가 해안으로 퍼지고, 지속 시간도 길어지며 일부 아열대 및 냉수성 어종이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음
- 호주 환경단체 호주해양보존사회(Australian Marine Conservation Society, AMCS)는 일부 어종의 자원량 감소에는 기후 변화와 더불어 수산 관리 관행에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 동남부 트롤 어업은 2005~2006년 자원 회복을 위해 실행되었던 매수 사업으로 이익을 본 바 있으나, 그 이후 남획 감시를 위한 조치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출처: The Guardian¹⁾

1)<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2/may/16/australian-authorities-to-buy-out-fisheries-city-climate-crisis>

□ 유어 부문과의 어획량 재할당 결과가 상업어업 업계에 부당하다 주장

- 멕시코만 상업어업 업계가 붉바리(red grouper) 어획 할당량이 불법적으로 유어 업계에 유리하게 설정되었다며 미 정부를 소송하였음
- 본 소송은 미 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의 수정조항 53(Amendment 53) 이행에 이의를 제기한 것임
- 본 수정조항은 멕시코만 해저 산호초에 서식하는 어류자원에 관한 수산 관리 정책으로서, 지난 5월 2일 발표되어 올해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휘될 예정임
 - 본 개정으로 멕시코만 붉바리 상업어업의 어획 한도 비중이 지난해 76%에서 올해 59.3%로 감소하으나,
 - 반대로 유어(recreational fisheries) 어획 한도 비중은 지난해 24%에서 올해 40.7%로 크게 증가하였음
- 상업어업 업계는 본 소송에서 "미 수산청이 수정조항 53을 승인하며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위법적으로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하였고,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본 소송은 미 수산청이 어획 한도 비율 재조정 시 사용한 데이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상업어업 부문이 유어로 발생한 높은 어획물 폐기율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유어 양륙 및 폐기량 데이터는 자발적 보고로 제출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미 수산청이 할당 재조정을 위해 본 데이터를 사용한 것에 의문을 표함
- 상업 업계는 자신들은 어획 한도 초과가 엄격히 관리되는 허가 제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성 보장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 유어는 수산 정책의 보존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매그너슨-스티븐슨 수산보존관리법에 반하는 결과라 주장하고 있음

※ 출처: SeafoodSource²⁾

2)<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gulf-of-mexico-commercial-fishing-groups-sue-us-government-over-red-grouper-reallocation>

-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안보회담(QUAD) 중 태평양 국가의 IUU어업 대응을 돕기 위하여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성 시스템 도입을 발표하였음
 - 해당 위성 시스템은 태평양 국가들에게 위성 기반의 인적 지능 정보를 제공하여 IUU 어업을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중국이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고 있는 도서국 주변에 집중 될 것
 - 쿼드에서 새롭게 형성된 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IPMDA)는 상업적 위성 운영체계를 연결 시켜 불법 어업이 의심되는 선박을 추적할 수 있음
 - 어선이 자동식별 시스템을 종료시켰을 때 이를 감지하여 위성이 레이더 및 라디오 빈도를 추적함
 - 특히 IPMDA는 자연 재해 대응 노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싱가포르를 포함한 "정보 센터"에서 가동될 것임
 - Global Fishing Watch와 같은 NGO의 발표에 따르면 168척의 IUU관련 어업 선박 중 단 두척만 AIS신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태평양 수역에서의 IUU어업의 심각성 불러일으킴
 - 쿼드 회담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미디어 매체는 쿼드를 NATO와 같은 동맹으로 묘사하였음
 - 실제로 최근에 중국은 솔로몬제도와 가까운 관계를 맺어 평화유지 임무를 위하여 중국 군대를 배치시키고 있어 호주 및 미국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이 키리바시와 안보 협력 구축을 위해 계획중이라고 보도하였음

※ 출처: www.seafoodsource.com ³⁾

³⁾<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us-led-initiative-providing-satellite-monitoring-for-pacific-nations-to-help-combat-iuu-fishing>

- 수산 및 양식 생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세계적으로 무역되고 있는 동물성 단백질 중 수산물이 가장 높은 순위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그 무역가치가 2021년 기준 1640억달러를 도달하였음
 - 최근 라보은행(Rabobank)이 발간한 보고서 및 수산물 무역 지도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21년 사이 수산물 무역의 기초 연평균 성장률(CAGR)이 2.4퍼센트를 넘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세계 수산물 지도에 따르면 다수의 수산물 거래 흐름은 주로 유럽연합(EU), 미국 및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해당 국가들의 총 수입액 합이 800억달러를 넘었음
 -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수산물 무역은 소고기에 비해 3.6배 더 높았으며, 돼지고기의 5배 그리고 가금류 무역보다 8배 높았음
 - 수산물 수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으로,
 - 수산물 수출 상위 10위 개국 중 7개국이 개발도상국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인도의 새우 및 에콰도르의 연어가 집중적으로 수입되고 있음
 - 무역 흐름도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나타내는 곳은 노르웨이에서 EU+영국으로 공급되는 경로로 해당 무역 흐름만으로 97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대부분 양식 연어 수입이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이후 EU+영국 시장의 CAGR는 2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위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인도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교역량이 그다음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시장의 CAGR는 2016년 이후 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경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수산물 수입량의 CAGR이 4.4퍼센트 증가하였으며 더욱 비싼 형태의 수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가 변화하여 고부가가치의 수산물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음

※ 출처: www.seafoodsource.com 4)

4)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rabobank-global-seafood-trade-value-rebounds-to-usd-164-billion>

- 상하이에서 3월 말부터 수주 간 계속된 봉쇄 후 일상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수입산 신선 식품들이 상하이 식탁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음
- 일상 회복은 봉쇄 기간 중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비전통적인 수단들을 사용한 도시 내 외국산 수산 및 신선 식품 회사들에 의해 가능했음
- 코로나19의 재발에 의해 가해진 최대 위협 중 하나는 공급망 정체였음
- 지역 간 운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냉동 수산 및 신선 식품 교역회사인 타이 유니온 차이나는 일부 상품들을 다른 지역에 저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총지배인 루리빈은 말했음. 그에 따르면, 회사는 지금까지는 1-2개의 창고에 상품들을 집중시켜 보관했었음
- 타이 유니온 그룹의 자회사인 타이 유니온 차이나의 총매출 중 20-40%는 상하이에서 발생하고 있음
- 루리빈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소비패턴과 물류채널의 변화로, 이전에는 1-2개에 맞춰진 상품 유형들이 더 많은 끼니를 이루는 형태로 조정되고 있다고 함
- 출장 서비스와 도매 채널을 통한 판매가 전무한 가운데, 타이 유니온 차이나의 유통 채널 판매액이 지난 달에 2배로 증가하였음
- 잘 알려진 뉴질랜드 과일 브랜드인 Rockit의 공급 체인 또한 타격을 받았었음. 이 회사 간부에 따르면, Rockit은 봉쇄 직후 상하이에서 공동체 구매 사업을 촉진하기 시작했다고 함
- Rockit의 도매 파트너들은 정상적인 유통을 유지하기 위해 봉쇄 조치가 발동되기 전 창고 내 근로자들의 장기근무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상품들을 축적하였음
- 외국 기업들은 월초부터 도시 내 사업을 재개하기 시작하였고, 유통 개선과 함께 운송과 판매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Rokit 간부에 따르면, 상하이 내 유통은 봉쇄 초기와 비교하면 상당한 정도로 개선되었고 배달 빈도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함
- 말레이시아의 Musang King 과일을 수입하는 한 회사는 자사의 많은 유통 파트너들이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허가된 기업 목록인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함. 이로 인해 유통과 작업, 생산은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음

출처: www.yicaiglobal.com ⁵⁾

5) <https://www.yicaiglobal.com/news/overseas-fresh-foods-reach-shanghai-as-businesses-embrace-unorthodox-methods>

- 인도는 최근 개최된 WTO 회의에서 원양어업을 하고 있지 않은 개도국들은 향후 최소 25년간 보조금 금지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도국의 어업 부문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유예 기간 동안 개발된 국가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 공간이 제공될 것이라고 하였음
-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을 원양어업으로 부르고 있음
- 본 이슈는 해로운 수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WTO 협정안 논의의 일부임
-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는 개발된 산업선단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CBDR(공동의 그러나 상이한 책임) 개념에 따라 보다 많은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해로운 보조금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음. 인도는 지난주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이슈를 제기했음
- 회의 의장인 Santiago Wills(콜롬비아) 대사는 다음 달 제12차 각료회의(MC12)에 앞서 해로운 수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글로벌 협정안과 관련된 논쟁적인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업 주간(Fish Week)'을 재개했었음
- 회의에서, 인도는 또한 본 협상의 목적이 현재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교역방해 원칙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 14.6)에 토대를 두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연료 보조금도 본 협정으로 규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인도는 의장안에 언급되어 있는 12해리가 아닌 최소 200해리 이내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영세 및 저소득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감축의 완전한 면제를 요구하고 있음
- 수산 보조금에 관한 WTO 협상은 수산 보조금에 관한 현존 WTO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도하에서 시작하였음
- 수산보조금 협정의 목적은 과도능력과 과도어획에 기여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통해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달성하는 것임

-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 제12차 세션은 6월 12-15일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임
- 인도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많은 국가들에 의한 비이성적인 혜택과 과도어획이 자국 어민들과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 보조금에 관한 협정이 타결되길 원한다고 강조해왔음
- 인도는 어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영세 어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형평한 협상 결과를 원하고 있음
- 자국 어민들에게 수조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 부유한 국가들과는 달리, 인도가 자국 어민들에 지원하고 있는 수산 보조금은 약 1500억원에 불과함. 국가별 연간 수산 보조금 지원금액은 중국이 약 7조5천억원, EU가 약 4조5천억원, 미국이 약 4조원, 한국이 약 3조5천억원, 일본이 약 3조2천억원임
- 인도는 연료, 선박 등에 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의장은 제안된 협정안에 대해 5월 30일부터 회의를 재개할 것임을 언급했음

※ 출처: economictimes.indiatimes.com ⁶⁾

⁶⁾<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agriculture/india-for-25-years-exemption-from-subsidy-cuts-for-developing-nations-not-into-distant-water-fishing/articleshow/91772050.cms>